

여성조합원에게 여쭙더니

김유진 금속노조 경기지부 여성국장

10년 넘게 아저씨와 부대껴 살았다. 회의장, 식당, 숙소, 간식까지 성별에 따라 고려할 게 다른데, 10년 만에 처음 여성 담당이 돼 막막했다. 남초 제조업 유노조 사업장의 소수 집단 여성 조합원에게 ‘집행부’가 바라는 건 관심과 참여다. 여성 간부가 여성위원회 활동으로 ‘핵심 간부’로 성장해 주길 바랐다. 금속노조에 여성위원회가 있는 유일한 지역지부라 여러 운동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역할도 있다. 안팎의 폭넓은 조직적-운동적 요구 사이에서 좁고 적은 우리 힘을 어디에 써야 하나. 아저씨 최적화 인간인 내가 생물학적 여자라는 이유로 넘겨짚을 수는 없었다. 먼저 실태를 알아야 했다. 1,500여 명의 여성 조합원에게 ‘여쭙소’ 설문문을 진행, 55%(851명)이 참여했다. 상당히 높은 참여율. 어찌 본인들에게 물어볼 생각을 한 번 못 했을까.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나이, 근속, 돌보는 가족 수, 돌봄으로 임금노동을 쉰 기간, 임금 격차, 노동 안전, 노동조합 인식 등을 물었다. 예상대로 여성 조합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거나, 돌봄 전담 가족이 없어도 가족 내 관리자와 작업자 일을 다 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남성적 문화(5%), 성별 선입견(17%)도 노동조합과 가깝기 어려운 장벽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28%). 조합활동 시간에 대한 접근성에도 격차가 있었다. 업무 중 조합활동 시간이 충분해도 여성은 주로 품질·검사 파트라 조합활동을 할 때 대체 인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소위 ‘비핵심’ 직책이라 눈치 안 보고 시간을 쓰기도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쓰기 어려운 시간을 확보하려 애쓰는 적극적인 여성 간부가 생기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니, 부족의 순환이다.

“여기 빠띠 노안부야?”

답변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노동안전’이었다. 비장애인 성인 남성의 몸에 맞춰진 현장에서 일하느라 아픈 데가 많다.(64%가 ‘힘들다’ 응답) 아파도 여성 질환이라, 여성 자리가 줄까봐, 남성 대비 저장도라 말 못하기도 했지만(34%) ‘말하기 크게 어렵지 않다’는 답이 더 많아서(42%) 다행이었다. 성차를 고려한 노동안전 교육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5%로 높았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부 노동안전담당자들과 함께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여성이 일하는 현장도 가보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활동 전개에 나는 “여기 빠띠 노안부인가요?” 당황했다. 나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 관련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권리 외쳤다가 자리마저 잃을라”

노안부 공동회의 후 뒷말도 있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남녀를 나눠”, “그래서 뭐 하자고?”...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낮은 활동을 당위로 밀어 가면 역효과가 더 크다. 현장 순회를 준비하며 “공장 새로 지어야 될 정도면 어찌지? 굶어 부스럼이면 어찌지?” 괴로웠다. 가보고 막막하면 그만두자고도 했다.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자칫 ‘그럼 그 사람들 뽑지 말자’는 결론이 나기 쉽다. 소위 ‘내부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지, 괜히 ‘권리를 외쳤다 자리마저 잃을라’ 침묵하게 되고 만다.

“해 왔고, 해 간다”

영화 같은 반전이었다. 여성이 1/3정도 되는 사업장의 여성 라인에 들어가자마자 여성 부장들이 작업대로 뛰어갔다. “어머 너무 좋아! 딱 맞아!” 작업대 높이가 여성 몸에 딱 맞았고, 중량물과 부품 박스는 기존의 반으로 무게를 줄였다. 전동공구에는 연장암(arm)이 붙어있고, 버튼은 팔길이에 맞게 옮겼다. 피스통까지 일하는 사람 몸에 맞게 다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여성의 비중이 좀 되고 남녀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면도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시작도 못했을 일이다. “조합원들이 같은 자리에 다 파스 붙이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개선을 시작했단다.

설문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이 오래되고 안정된 현장일수록 아프다는 답변도 적고, 성인지적 활동에 대한 필요도 적게 느꼈다.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안경을 쓰기 전에는 이름 붙이지 못했던 일상의 노력이 늘 있었고,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중인가 보다. 그날 우리는 ‘막막하지만 그래도, 때려 치지는 말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약속했다. 